

# LG 화학 051910

## Toyota 향 양극재 Binding 단독 계약 성공

### 이차전지/석유화학

Analyst 노우호

02. 6454-4867

wooho.rho@meritz.co.kr

### [LG화학은 Toyota의 EV 공급망에 양극재 단독 공급계약 성공]

금일 동사는 공시를 통해 북미 Toyota와 총 2.8조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Binding 계약을 체결함. Toyota는 전주 목요일(10/5) LG에너지솔루션과의 배터리 셀 공급계약(연간 20Gwh)을 맺은 바 있음. Toyota는 2030년까지 EV 350만대를 판매할 계획, 공급망 Lock-in 효과를 감안하면 EV배터리 최초의 파트너사 LG그룹과의 협업 규모는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미시건주에서 Toyota향 파우치형 전지를 양산, LG화학은 이에 투입될 양극재(NCMA 하이니켈)를 단독으로 탑재할 계획. 향후 Toyota의 EV Line-up 확대, 이에 맞춘 LG에너지솔루션의 증설 일정에 맞춰 LG화학의 양극재 공급량 또한 비례할 전망

### [LG화학은 첫 외부 고객사로 Toyota 선점, 향후 신규 고객사 추가 확보 예상]

금일 Toyota향 수주 공시는 최종 고객사가 물량을 보장하는 Binding 계약. 국내 구미/새만금 공장에서 양극재 25년 약 1천톤 공급을 개시, 28년까지 4년간 누적 약 7만톤을 납품할 예정. 그 외 양극재 추가 필요량은 LG에너지솔루션 미시건주 생산설비로 납품될 예정(이는 LG화학-LG에너지솔루션의 공급계약 체결은 양사간 연결 회계기준 내부거래에 해당되어 공시 의무가 없음). 결론은 Toyota-LGES간 파트너십에 양극재는 전량 LG화학이 담당

LG화학은 지난 5월 중장기 사업전망 공시를 통해 양극재 생산Capa 47만톤(2028년), 외부 고객사향 판매비중 40% 가이드를 제시했음. LG화학은 한국/미국 내 양극재 수직계열화 추진 중(전구체/리튬→양극재), 또한 모로코에서 원재료 이점을 바탕으로 LFP 생산기지를 구축할 전망

신규 외부 고객사는 미국 GM(미국 테네시주), 미국 Panasonic(소형 IT→EV/ESS), 미국 Tesla 등 순차적으로 확보될 전망

### [중장기 LG화학의 전지소재 사업역량 강화 및 협상력이 높아질 점에 주목]

LG화학은 중장기 3대 성장동력원으로 전지소재를 선정, 이를 위한 연구개발/공급망 관리/외부 고객사 확보 등을 노력 중. 23~24년 LG에너지솔루션향 양극재 경쟁사들 대비 점유율 하락에 다소 외형성장은 더딜 전망. 단, 사업 수직계열화를 통한 권역별 공급망 정책에 적극 대응 중으로 원가/기술력/현금동원능력 기반으로 중장기 사업가치 재평가 가능할 점에 주목

###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